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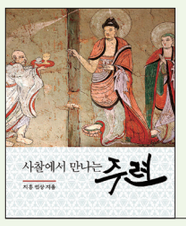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착한일많이하게그대가부처일세(고승열전11)경허스님	윤청광	우리출판사
4	반야심경정해:반야심경의의미왜곡을드러내고원래뜻을밝힌다	관정	알아차림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6	수심결:마음닦는요결(개정판)	지눌/오광익 연의	동남풍(=원불교출판사)
7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백문백답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8	숫타니파타(쿳다까니까야/원문수록)양장본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속담속에담은불교명쾌하고쉬운불교	김성철	오타쿠
10	읽기만해도보리심이샘솟는원빈스님의천수경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책세상

佛法 전하는 또 하나의 방편, 주련

오늘날 사찰 주련 찬탄이나 경책 등 주류
주련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교에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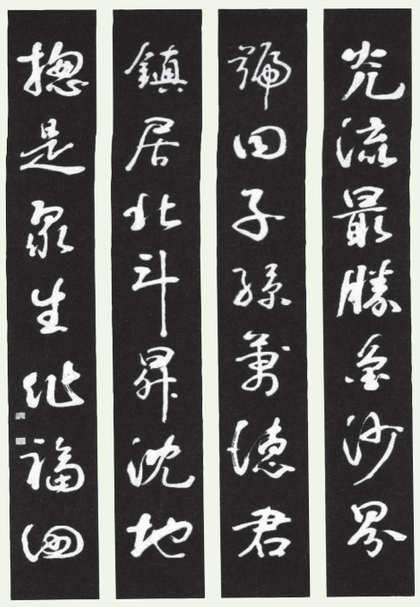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
지홍 법상 지음
5만5천원/문연 펴냄

주련(柱聯)은 영련(楹聯)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柱)와 영(楹)은 기둥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聯)은 '연이어' 라는 표현으로 판자에 글을 써서 새김해 걸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런 주련 내용은 건물 주제에 맞게 그 내용을 시로 찬탄해 더욱더 그 의미를 고양 한다. 대부분의 주련은 훈계나 격려 또는 경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련의 바탕이 되는 판자 아래로는 연잎이나 연꽃, 당초(唐草) 문양 등을 장식해 주련의 문장이 경직됐다면 이를 좀 더 완화하고, 흥부(興賦)하는 문구라면 더욱더 북돋우기도 한다.

주련도 엄연히 삼보에 대비해 본다면 법보에 해당한다. 주련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삼보 찬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련은 그 전각에 따라서 봉안된 주존(主尊)을 찬탄하는 내용을 경전서 인용하거나 아니면 시문을 지어 탄백(歎白)하는 내용으로 대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찰 주련은 찬탄이나 경책 등이 주류다.



여수 한산사 칠성각(글씨 남재 송석진)

세월의 흐름 따라 한자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냥 곁눈질하듯 지나가기에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든지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서 멀어지고 먼 산 쳐다보듯 도외시되기 마련이다. 주련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나고 죽음 없는 도리' 를 일러주는 것이며, 이를 '불생불멸(不生不滅)' 이라 한다. 또한 불교 재(齋)의례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법회이다.

그래서 법문을 들려주어 무명을 타파하길 바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를 모르면 시식(施食)이 음식을 베풀어 영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시식(施食)의 본질은 법식(法食)이다.

영가에게 법식을 베풀기 위해서는 재(齋)를 주재(主宰)하는 이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만 전해줄 수 있다. 뜻을 모르고 하는 염불은 염불(念佛)이 아닌 구불(口佛)이라 하여 예로부터 경책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불교의례 수행의 일상…비중 크다

590개 게송을 수록한 후 그 대강을 설명해
불교 의례 게송은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져



불교재의례게송
지홍 법상 지음
5만원/문연 펴냄

불교 의례는 수행의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만큼 의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방증이다. 의례 구조를 보면 문사(文辭) 게송(偈頌) 진언(眞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게송 내용을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과 〈작법귀감〉 등에서 발췌한 게송이 무려 6백여 개나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590개 게송을 수록해 그 대강(大綱)을 설명했다.

불교 의례의 게송은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한자 특성은 축약하는 언어 구조로 돼있어서 이를 풀이하지 않으면 문사(文辭)는 물론이고, 게송(偈頌)이 뜻하는 바를 알기 어렵다. 천학(淺學)한 낙동강 변의 납승(衲僧)이 게송을 들여다보았으나, 눈 밝은 이가 보면 겨우 언저리만 보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은 한 걸음이 시작돼 훗날에 눈 밝은 이가 이를 보태고, 구부려진 것을 바로잡는 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저자는 출간 취지를 말한다.

유가의 논어(論語) 가운데 양화(陽貨)편 제17에 보면 공자가 자신의 아들인 백어(伯魚)가 시경(詩經)을 배우지 아니하자 '백어' 를 나무라기를 사람으로서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세속에서는 의미가 와전되어 '알아야 면장(面長)을 한다' 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어찌 되었든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저자 지홍 법상 스님은 "세상사 늘 그렇듯이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다. 숲이 우거지면 새가 날고, 물이 깊으면 고기가 모인다. 교(敎)가 깊으면 대중이 모이고, 선(禪)이 깊으면 비불(非佛)은 없는 법"이라며 "하물며 세상일도 그럴진대 선교 우열을 나누는 자가 있다면 이는 눈먼 자가 코끼리 다리를 짚는 격이다. 사대(四大)가 모여서 만물을 이루듯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숨은 공로자가 많음을 함께 밝혀 둔다"고 피력한다.

詩·사진으로 만나는 송광사와 선암사



둥근거울
시 석연경
사진 김의길 외
문학들 펴냄
1만6천원

전남 순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의 석연경 시인이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전남 사찰 기행'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시와 사진으로 만나는 순천 사찰 기행-둥근 거울〉을 펴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고총림 선암사 및 한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아름다운 풍광과 불교 철학의 사유를 시와 사진으로 담았다.

송광서 대웅보전에 가보라/가지런히 신발 벗고/없는 마음 내리고 없는 괴로움도 버려라
합장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 과거 연등불 현재 석가모니 미래 미륵불이 무아이며 무상이니 공이며 중도라 연기적 세계에 갈 곳 알려주네
〈송광사 대웅보전〉 중에서

달마대사를 마주 보면 달마대사를 볼 수 없다/옆에서 비스듬히 보거나 조사전 문을 닫아야 보인다/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문을 닫으면 보이는 두 개의 밝은 마음
〈선암사 조사전〉中에서

송광사와 선암사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여순사건 등의 고난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 현재까지도 융성하게 불교문화를 꽃피는 우리나라 대표적 천년고찰이다.

이 책은 송광사와 선암사의 본찰과 암자는 물론 순천의 말사들을 시 62편과 사진 94컷으로 표현했다. 현지를 여행하는 독자에게는 실제 풍경과 사진 그리고 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인문여행 길잡이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연경 시인은 불교철학의 핵심을 풍광 속에서 간파하여 그것을 시로 승화했다.

시 〈능견난사〉를 예로 들면, 스님들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발우를 "보고도 알 수 없는 것/만지고도 알 수 없는 것/감각으로도 알 수 없고/머리로는 알 수 없는/놋쇠의 포개짐"속에서 "아래로 포개도/위로 포개도/하나로 포개지는//자연과 사람이/전생과 이승이/꽃과 나비가/손과 손이 포개지는"이라 표현하며 '불이(不二)' 의 세계로 연결시켰다.



송광사 일주문 ©김의길

시 62편과 사진 94컷으로 표현
풍광 속에서 불교를 詩로 승화

김준태 시인은 발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둘이 아닌 '하나' 의 세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즉 화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저자 **석연경 시인**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2013년 〈시와문화〉에서 시로, 2015년 〈시와 세계〉에서 문학평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독수리의 날들〉 〈섬광, 쇄빙선〉 〈푸른 벽을 세우다〉가 있고, 시 평론집 〈생태시학의 변주〉가 있다. 송수권시문학상 젊은시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